

해남 오시아노에 전국 캠핑 애호가 모인다

7~9일 전남캠핑관광 박람회... 700개팀 3200명 참가 야영 체험·캠핑카·카라반·용품 전시... 공연·행사 다채

오는 7-9일 사흘간 전국 캠핑 애호가 3200여 명이 해남 오시아노 해변으로 모인다. 해남군은 이 기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2023 전남캠핑관광 박람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전국 야영 애호가 700개 팀, 3200명이 참가한다. 캠핑 행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곳에서는 야영 체험을 하고 각종 캠핑용품을 만날 수 있다.

국내·외 11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캠핑차와 카라반(이동식 주택), 캠핑용품 등을 전시한다. 방문객들은 기업별로 마련한 전시 공간에서 직접 최신 캠핑용품을 체험해볼 수 있다.

'캠핑의 계절' 가을을 맞아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연·행사가 열린다. '낙시대회'에서는 팔도 강태공들이 모여 낙시 실력을 뽐내고, 전남 반려동물(펫) 페스티벌, 캠핑

요리대회, 해변 힐링 요가체험 등이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거리 공연과 열기구 체험 등을 즐기며 야영의 즐거움을 맛볼 예정이다.

행사 개막일인 7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오시아노 뮤직페스타'가 관람객을 찾아가는다. 로이킴과 안예은, DK, 크랙샷 등 실력과 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공연 후에는 오시아노 해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해남군은 교통혼잡을 예상해 7일 오후 2시부터 6시 10분까지 해남군 버스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행사 후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해 버스터미널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번 캠핑박람회는 '지속가능한 캠핑'을 주제로 열린다. 모든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빈손 캠핑 캠프



오시아노 해변.

페인'이 펼쳐진다. 야영 애호가들이 신선한 해남 농수산물에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캠핑꾸러미를 나눠주고 사전예약 판매를 하며 지역 구매 선순환을 높인다.

행사 기간 '지속가능한 캠핑 산업'이라는 주제로 캠핑 관련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도 열린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어린이 그림대회와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플로깅), 플로깅 보물찾기 등도 진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해 큰



전국 최대 규모 캠핑 축제 '2023 전남캠핑관광 박람회'가 오는 7~9일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해남군 제공>

호응을 얻은 캠핑 박람회가 올해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지속 가능한 캠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에

서 올 가을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영암읍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순항'

2025년까지 435억원 투입 공공도서관·문화회관 내년 착공 청년주택사업 공모 준비 중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감도.

영암 영암읍에 문화예술과 주거지역 등이 결합된 교동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읍 교동리 실내체육관 옆 18만 9602㎡에 4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에는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시설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들어선다. 영암군은 교동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9년 수요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2020)와 전라남도 실시계획 인가(2023년 4월), 전남도 건설기술심의(2023년 6월) 등을 거쳤다.

현재 조달청과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교동지구에 들어설 영암공공도서관과 문화

예술회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기획·투자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다. 단독주택 부지의 국비 확보를 위해선 '지역활력타운 영암형 청년주택사업' 공모도 준비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교동지구 개발사업은 달맞이

공원 조성 등과 함께 민선 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암읍을 만드는 균형 역점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수상

지자체 유일 공공부문 수상

신안군이 최근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부문 지역브랜드 수상자로 뽑혔다.

IPS 산업정책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신안군을 공공(지역 브랜드) 부문 수상자에 선정했다.

신안군은 다른 자치단체가 시도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며 섬이 가진 장점을 살려 우수한 성과를 냈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2019년에는 청년 여성 임대 지원사업을 벌였다.

청년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에는 국가 시책에 반영됐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민간 발전사업자의 태양에너지 개발 이익금에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 형태로 주민에



박우량(왼쪽 세번째) 신안군수 등이 최근 열린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지역브랜드를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게 분배하고 있다. 신안군은 안좌반월·박지도에 보랏빛 '퍼플섬'을 만들어 특유의 색채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1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에는 지난해 38만명이 다녀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악한 지역 여건을 뛰어넘기 위해서 창의적인 정책에 도전적으로 뛰어올 수 밖에 없었던 신안군의 노력이 오늘날의 경영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해상케이블카, 체전 성공 천만원 기탁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목포시정에서 개최된 기부금 기탁식에서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기탁식은 정인재 목포해상케이블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부금은 10월과 11월,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 체전의 준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목포시장인 박홍률 전국체전 운영 위원장은 "녹색지 않은 여건에서도 기부를 결정해 준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재 회장은 "제104회 전국체전은 목포 개항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가 단위 스포츠 행사이만큼 큰 성공을 기원하며 행사 기간 내방 하시는 방문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제 43회 장애인 체전은 11월3일부터 8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 12월 15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소형 화물차 최대 1950만원

목포시가 오는 12월15일까지 소형 전기화물차 54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23년 하반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소형 전기화물차 54대이다. 1대당 지원액은 최고 1950만원이다. 목포에 석 달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야 한다. 법인은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구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맺은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15일까지 할 수 있다. 결정 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안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평생교육 활성화·조직 강화 머리 맞댔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광주·전남지부 간담회

광주·전남지역 평생교육사들이 조직망 확충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남지부(지부장 최영수)는 최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중앙회(회장 이재주) 임원진이 광주지부·전남지부 등 전국에 있는 협회 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순회 간담회는 평생교육사협회 조직망 확충과 협회 위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주 협회 회장과 임원진은 광주·전남지부를 찾아 지부 간 운영 협력 방안과 지역협회 역할 등을 논의했다. 협력 방안으로는 '회원 배가 운동' '기초 지회

구성' '대의원제 도입' 등을 검토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최영수 전남지부장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라며 "광주·전남지부는 정규적인 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상담과 함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등을 제안해 전략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이달부터 전남 최초로 운영하는 '해남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지역민이 구강 치료를 받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전남 첫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

해남군이 이달부터 전남에서 처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열어 운영한다. 해남군 구강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국비 등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구강보건센터는 기존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보강해 마련됐다. 장애인 치과의료장비 등 최첨단 장비가 설치된 진료실과 함께 구강보건 교육실, 구강보건 사업실 등을 갖췄다. 지역주민에게 구강건강관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진료 등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한다. 충치 치료와 치석 제거(스케일링) 등 진료 업무와 함께 구강검사에서 구강건강관리 개별 교육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지역 치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신시설을 확충한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